

김호기의 '사회의 눈'



자살을 방조하는 사회

한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자살률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자살이 사회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 고 본 이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다. 그는 자살을 개인적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봤다. 그가 주목한 것은 평화 시기와 전쟁 시기에 따라 자살이 유대교·가톨릭·개신교에 따라 나타나는 자살률의 차이이다.

뒤르켐의 주장은 사회를 유지하는 '통합'과 '규제'가 극대화될 때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있다. 통합 정도가 너무 작은 상태에선 '이기적' 자살률이, 너무 큰 상태에선 '이타적' 자살률이 높아지고, 규제 정도가 너무 작은 상태에선 '아노미적' 자살률이, 너무 큰 상태에선 '숙명적'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적 존재와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자살률은 증가하게 된다.

뒤르켐의 자살 연구로 말문을 엮은 우

리 사회 현실 때문이다. 두 가지 사실이 내 눈길을 끌었다. 첫째,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12년의 10년 동안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01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보다 17명이나 많았다.

둘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2000~2012년 사이 우리나라 자살 증가율은 109.4%로 세계 2위다. 키프로스가 1위를 차지했지만 자살률이 5명 이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높은 자살률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노인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이다. 2012년 60대 자살률은 42.4명, 70대는 73.1명, 80대 이상은 104.5명을 기록했다.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가난 속에서 질병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15~24세) 자살도 그 사망 원인

의 1위를 기록할 만큼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살 충동에 응당한 청소년이 11.2%에 달했다. 성적·진학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고독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주목할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60~70년대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내외 정도였다. 1975년 자살률은 지금보다 높은 31.9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급속한 산업화가 가족·친족 등 전통적인 공동체로부터의 결속을 약화시킨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이 함의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가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 위기는 노인과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뒤르켐 연구에 비추면, 아노미적 자

살이든 이기적 자살이든 자살률의 증가는 사회통합의 약화와 사회해체의 위험에 비례한다.

자, 이쯤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삶의 질은 나아졌는가, 아니면 나빠졌는가. 초기 산업화 시대의 높은 자살률을 고도성장 과 그 과실의 분배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 현재의 높은 자살률은 무엇으로 낮출 수 있는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담을 포함한 즉각적 해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개편 등을 포함한 제도개혁이다.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자살을 방조하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자화상이 아닐까. 사회통합 약화와 사회해체 경향에 노란 불을 지나 빨간불이 커졌는데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낯설어지고 두려워지는 이 사회,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선 안 된다.

<연세대 교수>

종교칼럼

교황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김연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본당 주임신부

교황 Pope 은 그리스어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식됩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교황이라는 존재는 삼위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베드로의 후계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마태 23,9-10)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라는 존재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고 고대 신화나 전설의

잔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천년을 넘게 내려오는 환상의 주인공쯤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일부 극단주의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까지 몰아부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가?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표현은 오랜 전통의 뿌리에서부터 뻗어 나와 일상의 언어의 한 부분이 된 것으로 한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꼭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으뜸으로 부르심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한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루가5,8)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루가5,10)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든지, 더구나 죽음의 길까지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는 요한과 함께 그리스도

의 육신이 무덤에 없음을 확인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요한21,15-1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당신을 사랑하지 시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바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친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요한21,15)

구약성서를 보든 신약성서를 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기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꼭 당신의 겸손한 대리자를 뽑아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28,20)

이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세례와 다른 성사의 힘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와 함께 계십니다. 일찍이 교부시대부터

"그리스도인은 제2의 그리스도 Christiamus alter christus"라고 말해져 왔습니다. 이 말은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품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덕으로 부름 받은 그 소명의 고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참뜻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존귀함보다는 '봉사'를 뜻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수행해야 할 교황의 의무들, 교회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베드로의 직무'를 나타냅니다. 대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당신의 직무에 대한 표현 중에서 '하느님의 종들의 중'이라는 칭호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또한 교황만이 이 칭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각 교구의 교구장은 로마 교구장인 교황과 친교를 이루며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열두 사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교황의 호칭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호칭은 봉사의 직무이고 하느님의 인간에 사랑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주교요, 당신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성 아우구스티노) '그리스도인'이 '주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고

공공의료는 '공공의 적'이 아니다



서정성 광주시의사회 부회장·아이안과 원장

공공의료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다. 병상 수 또한 2009년 11.2%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에는 9.5%까지 떨어졌다. 의사인력 또한 민간에 비해 10%대 수준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몇 년간 '복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언론들은 앞 다퉈 유럽의 복지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이 쏟아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복지 1순위로 손꼽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성 강화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조식품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느님인 내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최고의 명약, 그리고 보다 좋은 의료시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의 심리다.

결국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간의 빈익빈부익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입회비가 1억 원을 훌쩍 넘고 연회비

가 수백만원대인 강남의 한 의료기관이 환자들로 넘쳐나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는 시장논리로 사고파는 공산품이 되어선 안 된다.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계산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의료는 빈민지원이나 취약계층만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자본의 논리 즉 손익을 따지는 수준을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과 복지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로 인식되어 있는 공공의료에 대해 공공의료의 본래의 기능, 예방과 교육,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의료를 행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문제는 단기적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 '건강한 적자'가 국민의 몫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연계활성화, 만성질환 노인 관리체계 구축, 병원급전문화와 특성화 등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전남 입점 추진 아웃렛 지역과 상생 나서야

여수에 대형 아웃렛 입점설이 불거지면서 전남이 국내외 유통기업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이 심한 대형마트와는 달리 입점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유통업체 역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입점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한국개발에 의뢰해 국내 2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장에 대한 투자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명품 아웃렛'과 '키즈 테마파크' 등 2가지 업종에 가장 많은 투자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아웃렛은 신세계 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께 나올 예정인 박람회장 매각 타당성 용역 결과, 장기 임대료 결정될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여수·여천상인연합회는 "아웃렛이 입점하게 되면 여수·여천지역 3000여 소형 매장들은 초도화될 것"이라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이미 LG패션이 광양에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을 결정했고, 신세계 사이먼이 나주시 노안면에 입지를 정해 추진 중이다. 대형 아웃렛 입점은 그동안 전남지역 관광 한계로 지적돼 왔던 관광 소용시설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수나 광양의 경우 지역 유통업계의 블랙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따라서 여수시의 광양시는 입점 추진단계에서부터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하나의 방편이지만 아웃렛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단일 내지 명품으로 한정해 일반 유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부 허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 역시 도내 주요 도시에서 아웃렛 입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상권과의 충돌을 막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충권' 집중, 또 다른 호남 소외 부른다

<首忠圈>

정부의 경기·인천 및 총청권에 대한 집중 투자로 광주·전남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지역불균형 조짐으로, 이를 바로 잡을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소득과 인구 추이를 비교 평가해 지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성장·정체·쇠퇴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의 퇴조가 뚜렷했다. 전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뒷걸음쳤고,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주도 1990년대 후반 들어 최근까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기·인천 및 총청권은 성장세가 괄목할만하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충청권에 예산·인력을 쏟아부어 빚어진 이른바 '수충권'(首忠圈) 집중 현상이다.

이처럼 정부의 편향된 지역발전 정책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기존의 성장지역이었던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거점도

시까지 쇠퇴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는 고학력 생산 기능인구의 눈물비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 지역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남, 전북, 강원 등이 쇠퇴한 것은 산업 및 교육기반이 취약하고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세계경제를 주도할 중국과 가깝고, 무안국제공항과 광양 컨테이너부두 등 기간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단견이다. 국가경제 주도역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 고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형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대(對)중국 교역을 위한 서남권과 전통적인 무역지대인 부산·경남권 등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불균등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無等鼓

주변의 50대 남성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눈물이 많아졌다든 거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난감하단다. 다른 가족들은 덩달한데 혼자만 눈물을 흘려 참피하라는 이도 있었다.

흔히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도서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 인문서나 경영서에 비해 '감성'을 요하는 소설과 시를 읽는 중년 남자들이 늘고 있다. 소설책 읽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남자들이 오랫동안 봐왔던 티라 흥미롭다.

50세가 넘으면 남성이 여성보다 문학 작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문고가 최근 5년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다. 소설의 경우 20대(남성 10.89%, 여성 22.03%), 30대(남성 9.44%, 여성 17.19%)까지는 여성 구매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남성 9.80%, 여성 13.84%로 격차가 줄어들고 50대가 되면 상황이 역전(남성 4.46%, 여성 2.91%)됐다. 60대에는 남성이 1.38%로 여성(0.4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시집도 비슷한 추세였다. 20대(남성 7.36%, 여성 20.23%), 30대(남성 7.36%, 여성 14.98%)까지는 여성이 초강세지만 40대는 남성(10.91%)과 여성(13.96%)의 차이가 확 줄어든다. 50대에는 남성(8.91%)과 여성(6.59%)의 비율이 뒤집혔고, 60대에선 남성(4.35%)이 여성(1.72%)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집 읽는 여성보다 시집 읽는 남성이 많다는 건 낯선 풍경이다.

문학작품 속에는 세상의 온갖 사건이 축약돼 있다. 시공을 초월해 사회, 역사, 철학, 인간의 문제가 다루진다. '서평꾼' 로자 이현우 단타라 흥미롭다. "문학이란 성체는 인간들이 써놓은 최우량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이여! 을 가을엔 소설을 읽어 보시라. 소설은 시시하다고 외면했다면 '장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처럼 영쾌한 책부터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영화로 개봉 중인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허기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도 시작하는 책으로 괜찮다.

참고로 요즘 중년 남성에게 가장 '핫'한 책은 제목이 모든 걸 담고 있는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소설 읽는 남자

50세가 넘으면 남성이 여성보다 문학 작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문고가 최근 5년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다. 소설의 경우 20대(남성 10.89%, 여성 22.03%), 30대(남성 9.44%, 여성 17.19%)까지는 여성 구매 비율이 높았다.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